

스스로 선택한 자멸의 길

얼마전 윤석열이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벌이고 공동성명이란 것을 발표하였다.

그는 미국상전과 짜맞추어 발표한 그 공동성명이라는 데서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 발전권리 등을 길고며 동족대결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그 무는 《한미의 빈틈없는 공조》, 《북인권》 문제 해결을 떠들었는가 하면 강력한 모든 역제력을 가동시킨다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재가동과 그를 통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남조선미군합동군사연습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상시, 순환 배치할 것 등을 명기하였다.

이로 하여 남조선은 미국

의 세계제야망실현을 위한 발진기지, 출발기지, 병참기지로 확고히 전략되게 되었으며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의 불도가니에 빠져들지 모를 최악의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윤석열이 미국상전과 조작한 《한미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철저히 공화국과의 정면대결, 전쟁대결을 모의하고 선포한 핵전쟁선언, 분렬선언이다.

공화국은 이미전에 주적은 전쟁 그자체이지 남조선이나 특정인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비롯한 남조선호전세력은 《북의 위협》이라는 당치않은 나발을 불어대며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함께 전쟁대결책동에 피는이 되어 날뛰고있는 것이다.

미국상전이 불러주는대로 《핵은 핵으로》라는 비리성적인 궤변과 시대착오를 공식화하였는데 분별을 모르는 윤석열패당의 어리석음이 있고 상상이하의 저능과 몽매를 가능할 수 있다.

가족이나 불안한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관계를 완전 결판 내리는 것이 윤석열패당의 흥심이다.

《한미공동성명》은 윤석열패들의 추악한 친미사대관, 동족적대관의 집적적인 표현이며 그 발원지이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한미공동성명》은 북을 자극하는 문제들만

플라 공식화하였다. 북의 체제를 위협하는 《대북적대시정책》을 재확인하였다. 《대북적대시정책》을 전면내 내세울것은 북의 핵무력강화를 막을수 있는 방도도, 북을 대화로 나서도록 할 자신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북의 선택에 따라 그시그시 대응하겠다는 수동적인 《대북정책》기조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한 것이다.

남조선 각계층도 《미국에 기울어진 편중안보, 편중외교로 적을 많이 만들고 외교불안, 경제불안, 안보불안을 가중시킨 실패한 회담》, 《동맹 강화》의 간판밑에 남조선이 지배와 예속의 울가미를 더욱 깊숙이 쓴 《굴종선언》, 《헌대안 5조약》, 지금까지 미국과 수많은

불평등조약들이 조작되었지만 이번과 같은 침략적, 범죄적정격이 짙은 《만국선언》은 보기 드물다고 준렬히 규탄하고있다.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완경과 가능한 군사적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화국의 자위권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하고 저들의 전쟁대결책동은 《대북억제력확보》로 미화하는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행위는 공화국의 자위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도전이다.

윤석열패들이 미국상전들 등에 업고 감히 세계적인 핵전쟁을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파멸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망동인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남조선 각계층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손의관계, 득실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윤석열패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경제안보 및 《기술동맹》구축에 합의함으로써 《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의 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포괄적전략동맹》, 《대동맹 동맹》으로 되었다고 떠들고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에 《경제주권》을 통째로 떠맡긴 것으로 된다고 평하고있다.

미국기업들로부터는 한푼의 투자도 받아내지 못한 대신 남조선기업들의 대미투자도 남조선의 재정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그것은 실업률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실제로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그 무는 《국방호상조달협정》 체결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것은 미군수산업체에 남조선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서 경쟁력이 약한 남조선의 중소기업업체들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대기업들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군수산업체들의 부속기업으로 전락되게 한다고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디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가입을 약속한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 주변국들로부터 반

게 되는 압력은 또 어떠한가.

반도체무역만 보아도 원자재의 수입과 수출의 대부분

치하였으며 원유, 천연가스, 석탄을 비롯한 이의 원자재수입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다.

더우기 이것이 경제문제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외교, 군사문제까지 확대되어 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니 한낱자리 곳을 하다 백냥짜리 징을 깨뜨린 격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그 무는 《동맹 강화》, 《확장억제력 확대》와 같이 부장난 어음조각과 같은 것을 잔뜩 받아낸 대신 《경제주권》을 미국에 설거지하고 민생을 미국의 칼도마우에 통째로 올려놓는 천하머저리짓을 한 윤석열 《정부》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이 이번 회담에 대해 《(한국)이 종이장에 불과한 안보약속을 보장받는 대신 미국은 막대한 현금투자라는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미국에 기울어진 편중안보, 편중외교로 적을 많이 만들고 외교불안, 경제불안, 안보불안을 가중시킨 실패한 회담》, 《미국에 경제주권을 통째로 떠맡기고 막대한 리익을 안겨준 불공정한 회담》, 《경제안보동맹은 빛 좋은 개살구, 속된 가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것이다.

참으로 남조선은 윤석열패들의 친미사대대국정책으로 하여 21세기판 식민지로 더욱 철저히 전락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황금숙

《인(거)불안》, 경제불안,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 실패한 회담



남조선군부호전 세력이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피는이 되어 미쳐날뛰고 있다.

남조선군부들이 새로 발간하게 된 《2022년 국방백서》에 공화국에 대한 《선제 타격》 등을 반영한 그 무는 《한국형3축타격체계》라는 표현을 명시하려 하는가 하면 얼마전 대규모 공군훈련에 광분한 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의 군사적대결망동은 가족이 나 첨예한 북남관계를 틀어질수 없는 최악의 국면에 몰아가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평화과피행위이다.

알려진 것처럼 공화국은 이미 지난 4월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이 동족에 대한 《선제 타격》 망발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하여 그 참담한 후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핵보유국에 대한 군사적망상을 삼가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심사숙고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은 추악한 친미사대대국노이며 동족대결망인 윤석열의 집권과 때를 같이하여 그 무는 《한국형3축타격체계》라는 표현을 《2022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정책화하려 하고있는가 하면 동족에 대한 《선제타격》기도를 실현에 옮기기 위한 북침전쟁발간을 미친듯이 벌이고있다.

지금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은 그 무는 《북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니, 《북이 도발가능성》이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저들의 군사적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떠드는 《북의 위협》이란 사실상 특정한 그 누구를 겨냥한 《도발》이 아니라 인민의 존엄과 안녕, 국가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이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벌리는 저들

의 군사적대결책동은 안보를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묘사하고 동족의 자위적활동에 대해서는 평화로 위협하는 행동으로 걸고드는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의 행위야말로 파렴치하고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도적이 제 그림자에 놀라고 죄지는 눈이 안절부절 못한다고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의 행태는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저들의 죄악에 찬 행동이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근심고민과 동상적인 사고에 따른 과도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의 집적발현이다. 특히 그것은 공화국의 무전막강한 군사적강세에 혼비백산한 죄인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미국이 이수인, 침략전쟁의 대포발에 불과한자들이 상상도 두려워 떠는 공화국을 향해 선봉질을 하였다고 분별없이 늘어대는 것이야말로 가스로운 광태가 아닐 수 없다.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이 끔찍한 말로써 괴러지는 지금이라도 때없이 상대방을 건드리지 말고 망상하지 말라고 한 공화국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는 물론 그가 임명한 장관들이 부정부패의혹을 산같이 안고 있는 범죄전파자들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남제는 부정부패의혹들을 날세이 파헤치고 범죄자들을 적발해야 할 남조선사법당국의 태도이다.

얼마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사회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현 집권자를 상대로 고발한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수사를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종결하였다.

그 부정부패사건이란 지난 2020년 12월 11일 판을 받은 보수종교단체인 《신천지》 교회에 대한 수사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현 집권자가

《교회를 박해하면 안된다.》는 정쟁이 《건진법사》의 《조인》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하도록 한것을 말한다.

이미 《공수처》는 지난해 부터 진행해온 검찰의 《국회》의 원천거개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집권자와 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주모자들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며 《라이 및 윌리엄스환매증단 사건》 부실수사의혹, 불법민사사찰의혹, 병역면제를 위한 시력검사조작의혹 등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의혹사건들도 기각시키거나 무혐의처리하였다.

그가 앉은 자리에서 맥주는 30여L, 술은 70여잔이나 마시는 술고래였다

대학시절 여기저기 밀러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아버지한테

《술통령》

매질을 당하고 어머니에게 야단맞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결혼이후 술량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지난 《대선》때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서도 주량이나 술주정은 그대로이니 지어먹는 마음 사를 못간다는 격이다.

그러고보니 지금까지 윤석열에게

《상식》이지만 보는바와 같이 집권세력파 그 부족들은 온갖 불법무법인 부정부패를 일삼고도 처벌을 받지는 고사하고 수사기구의 보호대상이 되고있는 반면 야당세력파들과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은 탄압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집권세력의 편역만 드는 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을 《권력의 시녀》, 《정치경찰의 부활》로 규탄단죄하고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이 쏟아져나왔겠는지.

그러니 남조선 각계층에서 《술통령》에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내달린 꼴이 되었다. 찍하면 소리떨렁떨렁하는 윤석열에게 절대로 민생과 《안보》를 맡기면 안된다 등의 개런의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는 것이다.

지어 보수층내부에서도 만취되었던 윤석열은 공무원으로서 정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시작부터 비정상이 되어 비틀거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민심의 비난과 배격속에 항방없이 가게 될 앞날이 원히 보인다.

김설조

미국이 남조선에 미사일요격체계인 《싸드》를 끌어들이기도 어려해가 흘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는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군사적우세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모험적인 패권전략의 산물이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핵전초기지로 더욱 전략시키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패당이 남조선에 《싸드》를 끌어들이는 것은 미국의 이 무모하고 침략적인 행위에 적극 추종한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싸드》의 배비로 하여 남조선은 미국의 군사적제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주변나라들의 직접적인 타격과너으로 월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친문학적역수에 달하는 《싸드》의 유지비용부담까지 걸머지게 되었다.

또한 《싸드》가 내보내는

강력한 전자기파에 의해 《싸드》기지주변의 주민들이 앞에 걸려 사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다.

하기에 미국의 《싸드》가 배치된 경상북도 성주군의 주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은 《싸드》배치를 남녘민중의 생존권을 빼앗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며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무분별한 망동으로 단죄하며 그의 철수를 위해 투쟁해왔다.

특히 윤석열패들이 《싸드》의 추가배치를 주요안보공약으로 내세운것과 관련하여 재가단체인 《싸드》를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얼마전에도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의 주

최로 《싸드》철거를 위한 김천시민들의 조발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싸드》배치이후 청정지역인 로곡리주민 10%가 암에 걸려 사망에 이르고 투병중인 현실을 폭로하면서 이를 외면하는 《정부》와 시장국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집회에서는 《우리가 옳다!

《싸드》 철거하라!》, 《우리가 평화! 김천의 평화, 한반도평화 실현하자!》는 구호가 힘차게 울려나왔다.

김천시주민들뿐 아니라 남조선각지의 주민들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피물 《싸드》를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파김치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남조선에서 새로 출방부 장관자리에 들어앉은 리종섭이 취임하자부터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며 멋없이 놀아내고있다.

이자가 취임식이라는 데서 《한국형3축타격체계》의 선제타격체계와 미사일요격체계의 조기구출을 통한 《대북억제력》 강화에 대해 제쳐냈는 가 하면 공군작전사령부와 미싸일방어사령부들을 돌아치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사병들을 《격려》하는 놀음을 벌여놓는 것이 그 단적실례이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식이 뼈속까지 짙은 자의 입에서 당연히 흘러나올 망발이지만 제 체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꼴은 참으로 가스롭기 그지없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애당초 공화국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허수아비장관의 역겨운 추태

없을 것이다.

하긴 무지무능한 《정치초년생》인 리종섭이 특출한 인물을 국방부 장관자리에 앉힐리 만무하다.

간담이가 잔뜩 불어나 주체는 망발로 몸값을 올려보자는 것같은데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외부에 안된다.

리종섭이 등이 달아 여러 기회에 북이 《직접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 동요없이 전장현지에서 작전을 종결지

을수 있게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파대를 돌군대는 또 다른 리유가 있다.

윤석열에게 국방부청사를 강점당하고 뿔뿔이 흩어진 공수총부의 이수인한 분위기를 다잡아보려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이 자기의 사무실을 국방부청사로 이전함으로써 하여 집값은 개신세가 된 공수총부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불만을 잠재우고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동족대결책동에 군부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으로서 이수인한 분위기를 다잡자는 것이 리종섭의 알락한 술수인 것이다.

세치 혀가 긴 목을 감는다는 말이 있다.

리종섭은 부질없는 대결망동을 일삼다가는 수식스러운 총장을 면할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준